

# 韓日語 對譯資料로서의 『朝鮮』 誌

片 茂 鎮\*

(e-mail: mjpyon@dankook.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5.1. ~について |
| 2. 『朝鮮』 誌의 일문판과 국문판 | 5.2. ~に際して |
| 3. 선행연구             | 5.3. ~における |
| 4. 『朝鮮』 誌 국문판의 한국어  | 5.4. ~に關する |
| 5. 『朝鮮』 誌의 언어사적 가치성 | 5.5. ~に對する |
|                     | 6. 마무리     |

키워드 : 朝鮮總督府機關誌(The official journal of chosun government-general), 日文版「朝鮮」(the Japanese version 'Chosun'), 國文版「朝鮮」(the Korean version 'Chosun'), 韓日語對譯(Japanese-Korean translation), 複合格助詞(the combined case-marking postpositional particle)

## 1. 들어가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朝鮮』紙는 일문판과 국문판으로 동시에 발행되었는데, 국문판 중에는 일문판의 일본어 문장을 對譯 형식으로 번역하여 게재한 논설이나 사설문 등이 있다. 이러한 일본어과 한국어의 대역문은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국어의 언어사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朝鮮』誌가 가지는 한일어 대역자료로서의 가치성을 규명하기 위한 첫 시도로, 복합격조사 표현에 대하여 일본어와의 대역을 통한 한국어의 변화상, 시기적으로는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시기의 한국어의 언어현실을 고찰함으로써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통시적 해석을 시도한다.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 2. 『朝鮮』誌의 일문판과 국문판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1911년 6월부터 『朝鮮總督府月報』를 출간하였고, 1915년 3월부터는 이름을 바꾸어 『朝鮮彙報』를, 1920년 7월부터는 『朝鮮』을 출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문서과가 직접 주기적으로 발행한 조선총독부의 정식 기관지인 『朝鮮』은 식민지 지배언어인 일본어로 발행되다가 1944년 11-12월 합병호(354호)를 끝으로 폐간되는데, 이 일문판과 같이 1920년부터 1934년까지는 조선어로도 발간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朝鮮』과 조선문 『朝鮮』이 양립하게 된다.<sup>1)</sup> 양쪽의 『朝鮮』을 비교해 보면, 일문판의 일부 내용이 국문판에 번역되어 실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두 종류의 『朝鮮』은 단순한 번역물이 아닌 별개의 내용을 가지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문판 『朝鮮』의 원문 자료는 최근에 정근식(2011)에 의하여 일반에게 영인 공개되었다. 국문판의 원본은 현재 1924년 1월호(76호)부터 1934년 3월호(197호)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이 가운데에서 82호~92호는 결본), 그것에 다른 도서관에 흩어져있던 1923년 1월호(64호)부터 1923년 12월호(75호)를 더하여 2011년 8월에 도서출판 文現에서 41권 123책으로 영인 출간하였다. 국문판 『朝鮮』은 그 문에 자료만 발췌하여 1999년 무렵에 도서출판 서광에서 영인본을 출판한 적은 있으나, 일부 날권을 제외한 국내에 보존되어 있는 모든 국문판 『朝鮮』의 일반 공개는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해제에도 『朝鮮』에 관한 유용한 서지적 정보가 담겨져 있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도 국문판 『朝鮮』의 영인 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3. 선행연구

『朝鮮』에 관한 연구는 일어판이든 국문판이든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복규·김기서(2003,

1) 이복규·김기서(2004:4-5, 정근식(2011) 참조.

2004)가 이 『朝鮮』이 가지는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냄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복규·김기서(2004:6-7)에 의하면,

『조선』에는 그 전신인 『朝鮮總督府月報』와 『朝鮮彙報』와는 달리, 일어판이든 국문판이든 민속 및 국학 전반에 관련한 연구 성과가 상당수 실려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민속학을 비롯한 우리 국학 연구의 시작을 1920년대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념인 바, 결국 『조선』에 수록된 민속관련 논문들은 초기(제1기)의 연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냥 지나 칠 수 없다. -이하 생략-

『朝鮮』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이복규·김기서(2004:7)에서도 지적했듯이, 근래의 일부 연구서에서 『조선』지에 발표된 일부 논문의 제목 소개가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이 밖에 최근에는 정근식(2011)의 『朝鮮』해제와 관련한 기술에서 본 잡지에 관한 서지적 개요를 파악할 수 있고, 조형근·박명규(2011)에서 『朝鮮』의 사진 이미지를 식민 권력의 식민지 재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 역시 『朝鮮』의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이복규의 일련의 연구 또한 본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에 대한 번역 및 자료 소개를 위주로 한 내용이라는 것이 선행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 4. 『朝鮮』誌 국문판의 한국어

일제강점시기에 앞선 개화기는 대략 1870년대 개항 시기부터 1910년 국권상실 전후의 시기를 가리키며, 언어사적으로 개화기 시기 국어는 어휘면으로 새로운 요소의 등장과 함께, 문체적인 면에서는 신·구 요소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개화기 국어에는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과도기적 언어현상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대국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형철1997:11-12 참조).

개화기의 문헌자료는 주로 신문류와 교과서류로 대표되는 창작문과 성경과 같은 언해문, 그리고 자전류가 있는데, 문체적 특징은 시대정신(계몽, 개혁, 일

상성, 보도성, 토론성 등)이 반영된 시대적 문체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중 고유어 어휘가 많이 사용된 의역구어체 문장을 별도로 하면, 한자어나 ‘재(在)하다’ ‘세계지인(世界之人)’과 같은 한문투 어휘가 많이 사용된 직역문어체, 그리고 표기적으로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쓰기 한 국한자혼용체 문장이 주류를 이룬다(김형철1997:62 참조).

『朝鮮』紙 국문판의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일문판의 직역문어체·국한자혼용체로, 개화기 시기의 문체·표기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 5. 『朝鮮』誌의 언어사적 가치성

『朝鮮』紙의 성격상 논문이나 사설 등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당연히 그것들의 제목에는 함축적 의미의 논리적 표현에 용이한 형용사적, 또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복합격조사가 자주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について」 「~に際して」 「~における」 「~に關する」 「~に對する」를 대상으로, 이러한 표현에 대한 한국어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어의 간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방법은 『朝鮮』紙 일문판의 것이 국문판에도 게재된 글이나 논문 등의 제목에 나타나는 대역의 한국어를 분석하여 1920년대와 30년대의 어형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가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 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朝鮮』紙가 가지는 언어학적(한국어사) 자료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전 예문을 제시한다(‘ / ’의 좌측은 일문판, 우측은 국문판의 예문을 나타냄. 이하 동일). 단, 예문 중에는 일본어와 1대1로 대응하지 않음으로 대역형식으로 불안하거나 생략되어 나타나는 등의 경우도 소수 존재하는데, 그런 용례는 제외한다<sup>2)</sup>. 그리고 통시적 해석의 자료가 되는 해당 표현의 <표>는 각 칸의 좌측에서부터 사용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다.

2)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朝鮮産業の綱概に就て / 朝鮮産業의 大綱 <144호(1929/10)>

朝鮮に於ける茶に就きて / 茶의 傳來(一) <178호(1932/8)>

創業時代に在る朝鮮の土木事業 / 緊要한 土木事業-道土木課長會議席上에서 <70호(1923/7)>

## 5.1. ~について

- 大正十二年度の豫算に就て / 大正十二年度豫算에 就하야 <66호(1923/3)>  
 朝鮮水産會令の發布に就いて / 水産會令發布에 際하야 <66호(1923/3)>  
 溫突の改造に就て / 溫突의 改造에 就하야 <67호(1923/4)>  
 漆樹及漆液に就いて / 漆樹及漆液에 就하야 <73호(1923/10)>  
 交通機關の整備に就て / 交通機關의 整備에 就하야 <74호(1923/11)>  
 道評議會會員選舉に就ての所感 / 道評議會會員選舉에 對하야 <78호(1924/3)>  
 朝鮮の國有林野の處分に就て / 朝鮮國有林野의 處分에 就하야 <80호(1924/5)>  
 朝鮮に於ける産業に就て / 朝鮮에 在한 産業에 就하야 <97호(1925/11)>  
 歐洲諸國戦後の國情に就いて / 歐洲諸國戦後の 國情에 就하야 <101호(1926/3)>  
 朝鮮産石炭に就いて / 朝鮮産石炭에 就하야 <101호(1926/3)>  
 歐洲諸國戦後の國情に就いて(承前) / 歐洲諸國戦後の 國情에 就하야 <102호  
 (1926/4)>  
 總督府新廳舎の計劃及實施に就て / 總督府新廳舎의 計劃及實施에 就하야 <102호  
 (1926/4)>  
 青島鹽の朝鮮輸入に就て / 青島鹽의 朝鮮輸入에 就하야 <102호(1926/4)>  
 朝鮮の現状に就て / 朝鮮의 現状에 就하야 <103호(1926/5)>  
 總督府新廳舎の計劃及實施に就て / 總督府新廳舎의 計劃及實施에 就하야 <103호(1926/5)>  
 朝鮮林政の改善に就て / 朝鮮林政의 改善에 就하야 <105호(1926/7)>  
 炭業の改善としての無煙炭田統一に就て / 炭業의 改善策으로서의 無煙炭田統  
 一에 就하야 <109호(1926/11)>  
 産業組合定款例に就て / 産業組合의 定款例에 就하야 <110호(1926/12)>  
 北韓産の木炭に就て / 北韓産의 木炭에 就하야 <110호(1926/12)>  
 朝鮮稅制改正に就て / 朝鮮稅制改正에 就하야 <114호(1927/4)>  
 煙草元賣捌人の指定に就て / 煙草元賣捌人指定에 就하야 <114호(1927/4)>  
 銀行減配實行に就て / 銀行減配實行에 就하야 <117호(1927/7)>  
 叭檢査規則發布に就て / 叭檢査規則發布에 就하야 <119호(1927/9)>  
 肥料取締令の發布に就て / 肥料取締令의 發布에 就하야 <120호(1927/10)>  
 朝鮮の領土問題 民族問題及鮮滿文化關係に就て /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問題  
 及鮮滿文化關係에 就하야(一)-鮮滿關係史의 一節 <121호(1927/11)>  
 朝鮮文化の變遷に就て / 朝鮮文化의 變遷에 就하야 <121호(1927/11)>  
 朝鮮の領土問題 民族問題及鮮滿文化關係に就て(完) / 朝鮮의 領土問題 民族

- 問題及鮮滿文化關係에 就하야(二)-鮮滿關係史의 一節 <122호(1927/12)>  
 朝鮮文化の變遷に就て / 朝鮮文化의 變遷에 就하야(承前) <122호(1927/12)>  
 朝鮮土地改良令の制定に就て / 朝鮮土地改良令의 制定에 就하야 <123호  
 (1928/1)>  
 메ートル法施行猶豫期間に就て / 米突法施行猶豫期間에 就하야 <123호  
 (1928/1)>  
 外米の輸入制限に就て / 外米輸入制限에 對하야 <125호(1928/3)>  
 土地改良令及改正水利組合令の實施に就て / 土地改良令及 改正水利組合令의  
 實施에 就하야 <128호(1928/6)>  
 登録稅令の改正に就て / 登録稅令의 改正에 就하야 <130호(1928/8)>  
 漁業組合規則改正に就て / 漁業組合規則의 改正에 就하야 <131호(1928/9)>  
 銀行令改正に就て / 銀行令改正에 就하야 <135호(1929/1)>  
 新漁業令の發布に就て / 新漁業令發布에 對하야 <136호(1929/2)>  
 天水畚問題研究の急務に就て / 天水畚問題研究의 急務에 就하야-手稻旱害救  
 濟의 根本策如何 <138호(1929/4)>  
 金融組合令改正に就て / 金融組合令改正에 就하야 <139호(1929/5)>  
 朝鮮民事令の改正に就て / 現行民事令等의 改正에 就하야 <140호(1929/6)>  
 朝鮮博覽會に就て / 朝鮮博覽會開設에 際하야 <144호(1929/10)>  
 朝鮮地方選舉取締規則の發布に就て / 朝鮮地方選舉取締規則發布에 對하야  
 <145호(1929/11)>  
 國民經濟の立直しと金解禁の決行に就て國民に訴う / 金輸出禁止解除에 際하  
 야-今後一層國民의 協力을 切望함 <146호(1929/12)>  
 新漁業令附屬法規の發布に就て / 新漁業令附屬法規發布에 就하야 <147호  
 (1930/1)>  
 市街地及準市街地の地價改正實施に就て / 市街地及準市街地의 地價改正實施  
 에 際하야 <148호(1930/2)>  
 朝鮮における國勢調査施行に就て / 昭和五年 國勢調査施行에 就하야 <149호  
 (1930/3)>  
 地方制度改正に就て / 地方制度改正에 就하야 <151호(1930/5)>  
 鹽輸移入管理施行に就て / 外鹽輸移入許可方針에 就하야 <151호(1930/5)>  
 朝鮮商工會議所令の發布に就て / 朝鮮商工會議所令發布에 際하야 <152호 (1930/6)>  
 地方制度改正に就て / 地方制度改正에 對하야 <158호(1930/12)>

- 朝鮮不動産登記令の改正に就て / 不動産登記改正에 際하여 <158호(1930/12)>  
地方制度の改正に就て / 地方制度의 改正에 對하여 <159호(1931/1)>  
地方選舉の取締について / 地方選舉의 取締에 對하여 <159호(1931/1)>  
朝鮮の風土病に就て / 朝鮮의 風土病에 對하여 <161호(1931/3)>  
窮民救濟事業に就て / 窮民救濟事業에 就하여 <163호(1931/5)>  
朝鮮國有鐵道の經營に就て / 朝鮮國有鐵道の 經營에 就하여 <165호(1931/7)>  
國旗の掲揚に就て / 國旗掲揚에 對하여 <172호(1932/2)>  
中學教育教科用圖書定價價下に就て / (本府編纂中學校育)教科用圖書定價減下  
에 對하여 <172호(1932/2)>  
朝鮮電氣事業令の制定に就いて / 電氣事業令制定에 對하여 <173호(1932/3)>  
滿洲の沿革に就て / 滿洲의 沿革에 對하여 <175호(1932/5)>  
鐵道局官制の改正と自動車運輸業の監督に就て / 自動車運輸監督權移管에 對  
하여 <179호(1932/9)>  
自作農地設定計畫について / 自作農地設定計畫에 對하여 <180호(1932/10)>  
農山漁村の振興に就て / 農山漁村振興에 關하여 <181호(1932/11)>  
産金奨勵に就いて / 産金奨勵에 對하여 <181호(1932/11)>  
探鑛奨勵金と探鑛請負に就て / 探鑛奨勵金과 探鑛請負에 就하여 <182호(1932/12)>  
朝鮮小作調停令と刑事補償法規制定に就いて / 朝鮮小作調停令에 關하여 <183  
호(1933/1)>  
鑛業令の改正に就いて / 鑛業令의 改正에 就하여 <183호(1933/1)>  
道制に施行に就て / 道制의 實施에 就하여 <185호(1933/3)>  
林野稅の賦課に就て / 林野稅의 賦稅에 對하여 <185호(1933/3)>  
道制に就て / 道制에 就하여 <186호(1933/4)>  
鑛業令施行規則の改正に就て / 鑛業에 關한 技術官派遣規則改正에 就하여  
<187호(1933/5)>  
慶州積石塚出土の農具に就て / 慶州積石塚出土의 農具에 對하여 <187호(1933/5)>  
低品位金鑛石賣鑛奨勵金交付規則に就て / 低品位金鑛石賣鑛奨勵金交付에 對  
하여 <188호(1933/6)>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の發布に就て /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  
物 保存令의 發布에 就하여 <191호(1933/9)>  
朝鮮砂防事業令と輸移出入植物檢査規則發布に就て / 朝鮮砂防事業發布에 對  
하여 <191호(1933/9)>

## 〈표1〉 「~について」의 대역

20년대	30년대
~에 就하야, 對하야, 際하야	~에 對하야, 就하야, 際하야, 關하야

[분석 및 해석]

- \* 20년대에는 일본어 「就いて」에 대한 한국어 ‘就하야’로 직역적 표현의 한문투 어휘가 일반적이거나, 30년대 들어서부터는 ‘對하야’와 같은 의역적 표현으로 변화한다.
- \* 30년대에는 ‘關하야’와 같은 의역적 표현이 추가되면서 현대어에 이른다. 「~について」에 대한 현대국어는 ‘~에 대하여, 관하여’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朝鮮』紙에서의 위와 같은 현상은 당시의 국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新教育令의 實施에 就하야 / 동아일보 1면 사회 기사(사설) / 1922.4.11.  
高麗畫跡에 對하야 / 高裕燮 / 『진단학보』 제3호 / 1935.12

참고적으로 이전 시기인 개화기의 학술지에도 일부 사용례들이 보인다<sup>3)</sup>.

□ 西北學會月報(서북학회)

제2권 제14호(1908년 7월1일) 憲法上 八大自由에 就하야(法學少年)  
永興의 三學校聯合에 對하야(浦東少年)

□ 大同學會月報(대동학회)

13호(1909년 2월25일) 資本에 就하야 論(法律讀書人)

□ 畿湖興學會月報(畿湖興學會)

제2권 제5호(1908년 6월25일) 貧民에 對하야 教育觀念(金鳳鎭)  
제2권 제6호(1908년 7월25일) 教科書의 內容에 關하야 調査(學部)

3) 한국 개화기 학술지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8년)

- 西北學會月報 / 서북학회 / 1908년 6월1일 창간 ~ 1909년 1월1일(통권 20호)
- 大同學會月報 / 대동학회 / 1908년 2년 2월25일 창간 ~ 1909년 9월25일(통권 20호)
- 畿湖興學會月報 / 畿湖興學會 / 1908년 8월 창간 ~ 1909년 7월(통권 12호)



## 5.2. ~に際して

道知事會議に際して / 道知事會議에 對하야 <69호(1923/6)> \*有吉忠一(政務總監)

年頭に際して / 年頭에 際하야 <76호(1924/1)> \*齋藤實(總督)

御饗宴の日に際して / 道知事會議에 對하야 <81호(1924/6)> \*齋藤實

歸朝に際して / 歸朝에 際하야 <121호(1927/11)> \*齋藤實

退官に際して / 退官에 際하야 <123호(1928/1)> \*齋藤實

即位大禮に際して / 即位大禮에 際하야 <123호(1928/1)> \*山梨半造(總督)

千載一遇の昌期に際して / 千載一遇의 昌期에 際하야 <133호(1928/11)> \*池上四郎(政務總監)

朝鮮博覽會に際して / 朝鮮博覽會에 就하야 <144호(1929/10)> \*齋藤實

昭和五年の新春に際して / 其職에 精勵하라-昭和五年의 新春에 際하야 <147호(1930/1)> \*齋藤實

金解禁の實施に際して / 金解禁實施에 際하야-今後一層勤儉力行하라 <148호(1930/2)> \*兒玉秀雄(政務總監)

施政滿二十年に際して / 施政滿二十年에 際하야 <156호(1930/10)> \*水野鍊太郎(貴族院議員/法學博士)

教育勅語渙發 四十周年記念式に際して / 教育勅語渙發 四十周年에 際하야 <157호(1930/11)> \*齋藤實

朝鮮取引令公布に際して / 朝鮮取引令公布에 際하야 <164호(1931/6)> \*齋藤實

道制の施行に際して / 道制의 施行에 際하야 <185호(1933/3)> \*宇垣一成(總督)

<표2> 「~に際して」의 대역

20년대	30년대
~에 際하야, 對하야, 就하야	~에 際하야

[분석 및 해석]

\* 직역적인 ‘~에 際하야’가 일반적으로, 30년대에는 이 표현으로 통일되는 경향이다.

\* 의역적인 ‘~에 즈음하여’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위의 14개의 사용례 중 10례가 총독의 글에 나타나며(齋藤 8, 山梨 1,

宇垣1), 총독은 아니더라도 총독 다음의 지위에 있던 政務總監의 글에 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적어도 1920,30년대까지는 位相語로서의 기능,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어휘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한편 「~に際して」의 대역으로 의역적인 ‘~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표현의 용례가 국내 문헌에서는 30년대 후반에 보인다. 『朝鮮』誌에는 아직 현대어적인 이 표현이 당시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 天日記念을 際하여 崔水雲 先生을 追憶함 / 김병제 / 『해성』 제1권 제2호 / 1931. 4  
 감사절에 즈음하여 / 오천영 / 『추수감사절 사회학』/1937년 (청년잡지사)

### 5.3. ~における

- 咸興地方に於ける漢時代並に高麗時代の遺跡 / 咸興地方에 在한 漢及高麗 時代の 遺跡 <66호(1923/3)>  
 朝鮮に於ける繩吠の産出に立ちて / 繩吠에 就하여 <73호(1923/10)>  
 朝鮮に於ける交通と警察 / 朝鮮에 在한 交通과 警察 <75호(1923/12)>  
 朝鮮に於ける鐵道制度 / 朝鮮에 在한 鐵道制度 <75호(1923/12)>  
 石窟庵の境内に於ける古代の石垣及古塔 / 石窟庵의 境域内に 在한 古代의 石 垣及古塔 <77호(1924/2)>  
 朝鮮に於ける國民の擔稅狀況 / 朝鮮에 在한 國民의 擔稅狀況 <79호(1924/4)>  
 道知事會議に於ける訓示 / 道財務部長會議에 對하여 <93호(1925/7)>  
 朝鮮に於ける牛市場 / 朝鮮의 市場分布狀況 <97호(1925/11)>  
 朝鮮に於ける産業に就て / 朝鮮에 在한 産業에 就하여 <97호(1925/11)>  
 朝鮮に於ける家庭燃料問題 / 朝鮮에 在한 家庭燃料問題 <100호(1926/2)>  
 朝鮮に於ける火田の分布 / 朝鮮에 在한 火田의 分布 <103호(1926/5)>  
 大正十四年に於ける石炭需給の狀況 / 大正十四년에 在한 石炭需給의 狀況 <107호(1926/9)>  
 朝鮮に於ける發電水力 / 朝鮮에 在한 發電水力 <109호(1926/11)>  
 朝鮮に於ける契の利用 / 朝鮮에 在한 契의 利用 <111호(1927/1)>

- 朝鮮に於ける貧富考察 / 朝鮮에 在한 貧富考察 <125호(1928/3)>  
 我國に於ける図書館の發達 / 圖書館의 發達 <125호(1928/3)>  
 朝鮮に於ける司法及刑務の概要 / 朝鮮의 司法及刑務에 關한 概要 <144호  
 (1929/10)>  
 朝鮮における海運の変遷 / 朝鮮海運事業의 今昔 <144호(1929/10)>  
 朝鮮における資源調査に就て / 朝鮮의 資源調査에 就하야 <156호(1930/10)>  
 朝鮮における未發見の温泉と炭酸泉 / 未發見의 温泉과 炭酸泉 <160호(1931/2)>  
 朝鮮に於ける氣象觀測事業の一斑 / 朝鮮의 氣象觀測事業의 一斑 <164호(1931/6)>  
 朝鮮に於ける郵便貯金の趨勢 / 朝鮮郵便貯金の 趨勢 <167호(1931/9)>  
 朝鮮に於ける農村部落の分布 / 朝鮮農村部落의 分布 <172호(1932/2)>  
 朝鮮に於ける養蠶小作の研究 / 朝鮮의 養蠶小作에 對하야 <175호(1932/5)>  
 朝鮮に於ける茶に就きて / 茶의 傳來(一) <178호(1932/8)>  
 朝鮮に於ける棉花栽培の現在及び將來 / 朝鮮의 棉花栽培의 現在及將來 <182  
 호(1932/12)>

<표3> 「~における」의 대역

20년대	30년대
~에 在한, ~(의)	~(의)

[분석 및 해석]

- \* 20년대에는 ‘~에 在한’으로 사용되다가 30년대에는 ‘~의’ 또는 ‘~의’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 \* 현대국어의 ‘~에 있어서의’는 적어도 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으며, 더구나 일본어적인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에 있어서의’ 표현과 관련하여 40년대 말에 가서야 사용례가 보인다.

- 예) 日本에 在한 我韓留學生을 論함 / 이광수 전집1 (1910년대)  
 朝鮮內에 在한 諸外人의 經濟的勢力 : 千分中九百九十七分을 占有한 鑛業界  
 에 在한 外國人의 勢力 / 개벽사 / 『개벽』 제30호 (1922.12)  
 中國에 在한 日本의 利權動搖와 東亞의 今後의 大勢 / 이동곡 / 『개벽』  
 제36호 (1923.6)

亞細亞에 있어서의 蘇聯 (六) / 경향신문 1면 정치 기사 (1949.6.3)

앞선 개화기의 학술지<sup>4)</sup>에도 일부 사용례들이 『朝鮮』誌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다.

□ 太極學報(재일본동경 太極學會)

10호(1907년 5월24일) 動物체에 在 乎 勢力的 根源(朴相洛)

12호(1908년 4월20일) 日本에 在 乎 我韓留學生을 論 訃(李寶鏡)

□ 大韓興學報(재일본동경 대한흥학회)

2호(1909년 4월20일) 社會進步在於宗教의 確立(朴憲用)

12호(1910년 4월20일) 日本에 在 乎 我韓留學生을 論 訃(李寶鏡)

특히 이 「~における」의 경우는, 한일어 대역에 의한 양국어의 '간섭'에 관한 문제 중, 특히 일본어의 간섭으로 잘못 인지된 국어현상의 규명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에 있어서의'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의 「~における」에서 나온 일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인식인데, 적어도 『朝鮮』誌를 통해서는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할만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30년대의 한국어 표현 '~에 在 乎'이 '~에 있어서의'로 변해가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남지만,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朝鮮』誌는 현대국어의 성립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유익한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 5.4. ~に關する

朝鮮民政資料 料契に關する調査 / (朝鮮民政資料)料契에 關한 調査 <72호 (1923/9)>

畜牛に關する三大問題 / 畜牛에 關한 三大問題 <76호(1924/1)>

市場稅に關する考察 / 市場稅에 關한 考察 <106호(1926/8)>

4) 한국 개화기 학술지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8년)

- 太極學報 / 재일본동경 太極學會 / 1906년 8월24일 창간 ~ 1908년 12월24일(통권 27호)

- 大韓興學報 / 재일본동경 대한흥학회 / 1909년 3월20일 창간 ~ 1910년 5월20일(통권 13호)

朝鮮事業界合理化の傾向に關する一考察 / 朝鮮事業界合理化의 傾向에 關한  
一考察(一) <148호(1930/2)>

地方制度改正に關する内地新聞の論調 / 地方制度改正에 關한 新聞論調 <159  
호(1931/1)>

農村改善に關する我が道の施設 / 部落改善에 關한 各道の 施設 · 忠清北道  
<171호(1932/1)>

農村改善に關する我が道の施設 / 部落改善에 關한 各道の 施設 · 忠清南道  
<171호(1932/1)>

地方法院支廳事務停止等に關して / 地方法院支廳事務停止等에 關하여 <173호  
(1932/3)>

北鮮火田民の指導に關して / 北鮮火田民指導에 就하야 <190호(1933/8)>

### 5.5. ~に對する

朝鮮に對する有難き思召 / 朝鮮에 對한 優渥하신 聖慮-去一月四日本府御用始  
式에 臨하야 <77호(1924/2)>

地方制度の今昔と將來に對する希望 / 地方制度의 今昔과 將來에 대한 希望  
<97호(1925/11)>

「~に關する」와 「~に對する」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 관한’과 ‘~  
에 대한’에 대응하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없다.

이상, 『朝鮮』誌의 논설문 등의 제목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5개의 형용사적,  
부사적 복합격조사를 선정하여 그것들의 한국어 대역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  
찰하였다.

<표4> 복합격조사 한일어 대역의 변화상

시대 일본어	20년대	30년대	현대어적인 표현
~について	~에 就하야, 對하야, 際하야	~에 對하야, 就하야, 際하야, 關하야	~에 대하여
~に際して	~에 際하야, 對하야, 就하야	~에 際하야	~에 즈음하여

～における	～에 在한, ～(의)	～(의)	～에 있어서의
～に關する	～에 關한	～에 關한	～에 關한
～に對する	～에 對한	～에 對한	～에 對한

복합격조사의 한일어 대역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朝鮮』誌 국문판의 한국어는 일단 일본어의 간섭보다는 당시의 국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역문어체적 표현에서 의역문어체적 표현 혹은 구어체적 표현으로의 과도기적인 언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6. 마무리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문판에 이은 국문판 『朝鮮』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규명은 식민지 시기 한국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朝鮮』誌의 언어사적 자료 가치, 특히 한일어 대역자료로서의 효율성을 규명하는 첫 시도로, 논설문의 제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복합격조사의 대역 한국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朝鮮』誌에는 당시의 국어 현실이 비교적 잘 반영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언어변화상을 통시적으로 해석 가능한 자료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における」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일어 대역에 의한 양국어의 '간섭'에 관련한 문제 중, 특히 일본어의 간섭으로 잘못 인지된 국어현상의 일면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하였다.

### 【참고문헌】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정근식(2011) 「조선문 『朝鮮』 解題」(朝鮮文 『朝鮮』 )  
 이복규(2003) 「조선총독부 기관지 국문판 <조선>지(1924.1-1934.3) 수록 문학작품 및 민속, 국문학 관련 논문들에 대하여」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pp.421~451  
 이복규(2009a)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지의 김백당 채록 동요」 『국제어문』 45, 국제어문학회

어문학회 pp.447~481

이복규(2009b)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지의 김지연 채록 민요들」 『국제어문』 46, 국  
제어문학회 pp.335~394

이복규·김기서(2004)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 국문학 자료』 민속원

편무진 외(2013) 『朝鮮史 번역·해제』 인문사

논문 투고 일자 : 2017. 11.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旨＞

## 韓日語対訳資料としての『朝鮮』誌

片茂鎮

朝鮮総督府の機関誌として、日文版に次ぐ国文版『朝鮮』の資料的価値に対する究明は、植民地時代の韓国に関する研究をより体系的・立体的に進めていく上で必要な要素だと思う。本稿は『朝鮮』誌の言語史的な資料、特に韓日語対訳資料としての効率性を究明する初の試みで、論説文の題目などでよく使われる複合格助詞の韓国語訳につ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朝鮮』誌には当時の韓国語の現実が比較的充実に反映されており、したがって、一定の言語変化像を通時的に解釈できる資料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なお、韓日語の対訳による両国語の‘干渉’、特に日本語の影響により現代国語が屈折していく過程を明らかにすると同時に、日本語の干渉と間違えて認識していた国語現象を正しく理解する上で有益な文献資料に値するものと思われる。

## Journal “Chosun” as research material to understand Japanese–Korean translation

Pyon, Moo-Jin

This paper represents the first attempt to discover the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n language of the journal “Chosun” and its effectiveness as research material to study Japanese–Korean translation. In this study, I studied the combined case-marking postpositional particle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article titles. I found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well reflected in the journal “Chosun.” Thus, I was able to identify data values reflecting diachronic change. It can also explain the changes that occur when translating between the languages of two countri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language. Further, the journal “Chosun” is a valuable source to correctly understand the misleading phenomenon of Modern Korean, which is misinterpreted with regard to the interference of the Japanese language